



# 고려 12세기 강진요와 북송 여관요 청자비교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국제학술 세미나

2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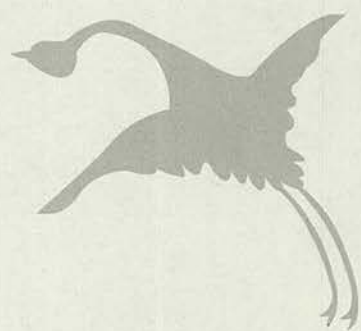
강진군·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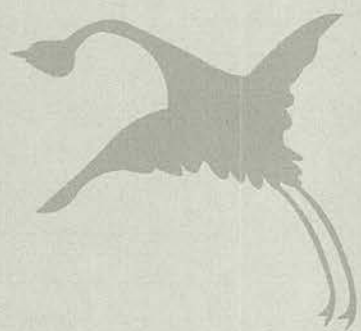
**▶ 표지 유물 사진**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 (靑磁 陽刻 雲龍文 梅瓶)

고려 12세기, 보물 1385호, 높이 40.0cm, 입지름 8.3cm, 굽지름 14.0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 개소기념 국제 학술세미나

## 고려 12세기 강진요와 북송 여관요 청자 비교

일시 : 2005. 8. 2.(화) 14:00~17:00

장소 : 강진 도예문화원 시청각실





## 인 사 말 씀

강진군 청자도요지는 그 역사적인 가치와 청자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세계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진 청자도요지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초 프랑스 UNESCO 본부를 방문, 2006년 4월 3일부터 12일간 파리에서 「강진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실시된 적이 없는 초유의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와 더불어 세계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청자는 국내의 한국미술은 물론 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며, 고려시대 50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꾸준히 청자를 제작한 수 백 개소에 이르는 강진 청자도요지 또한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할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이러한 청자의 본 고장인 강진에 2005년 5월 27일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로 10회를 맞는 강진청자문화제 기간동안에 《고려 12세기 강진요와 북송 여관요 청자 비교》라는 주제로 뜻깊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명망있는 학자들의 청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가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토대로 청자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학술세미나 개최에 힘써주신 박종훈 도예연구소장님과 최 건 조선관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강진군수      황 주 홍

## 인 사 말 씀

강진이 청자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것은 매우 자랑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옛것도 있고 지금의 언어로 변화된 청자도 있어야 지금에 사는 이들이 청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옛것에서부터 새로움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한·중은 따로 있으면서 연결되어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따로 개성있는 도자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중 서로의 기술과 기법을 비교하여 청자의 영역을 넓히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청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인 국제 학술 발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 8.

단국대학교 부설 강진도예연구소장    박    종    훈



■ 논문 발표

- 강진요와 여관요 청자의 조형 비교  
최건(崔健, 조선관요박물관장)
  
- 중국 하남 보퐁 청량사 여요와 여주 장공향요 출토품 비교연구  
곽목삼(郭木森,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 부연구원)
  
- 강진청자의 조형성  
박중훈(朴鍾勳,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 靑磁의 色과 形, 그의 특징

최 건(崔 健, 조선관요박물관장)

### 1. 머리말

청자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중국에서도 청자는 당대(唐代) 후기까지 특수한 용도로 제한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에 폭 넓게 확산될 수 없었고 따라서 주변국가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다. 8세기 후반, 만당(晩唐) 때부터 일상용품에서 청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실용성과 예술성 및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고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자기질(磁器質) 청자의 완성은 금속이나 식물성 재료와 같은 천연 소재를 단순 가공했던 소박한 공예에서 원료의 매장량이 무한하여 염가이며 다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공예(工藝)가 인류사회에 등장했음을 알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에 있어서 청자문화를 받아 들일만한 사회적 제반 여건은 마련되어 있었다. 자연 환경도 중국청자의 중심이었던 양자강 하류 월주(越州)지방과 대체로 유사했고 통일신라 시대후기(9세기경) 요업기술도 청자의 바로 전 단계인 고화도(高火度) 회유도(灰釉陶)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중국으로부터 청자의 핵심기술만 도입한다면 한반도에서 세계 두 번째 청자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후기 9세기 전반 또는 그 후반 경, 청자 제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한반도의 서부지역의 실력자들은 중국청자를 대표하는 절강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의 제작기술을 직접 받아들여 청자 가마[窯]를 세우고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이 2000년 동안 수많은 단계를 거쳐 완성한 청자를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이다.

## 2. 청자 제작의 주체

한반도에서 청자 제작은 중국의 적극적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개과정에서 중국과 다른 독자적 개성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식의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중국과 다르고 특히 청자 제작과 소비의 주체(主體)인 고려사회의 리더들의 성격이 중국과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사회의 제도화된 중앙집권체제도 청자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초창기에 전국각지에 산재했던 청자요들이 고려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과정과 함께, 중앙의 선택을 받은 전남 강진요(康津窯)로 단일화된 것이다. 고려왕조 500년 동안 강진의 주변과 각 지방에서 수많은 주변요(周邊窯)들이 우후죽순과 같은 형세로 가마를 세우고 쓰러지고 했지만 항상 중심이었던 강진요의 양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주변 청자요들은 스스로 독자적 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강진요 청자의 모방이나 지방화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일관하지 못했다. 고려왕조 50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은 수준 높은 문화민족인 한족(漢族)과 그렇지 못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었으며, 당말(唐末)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 이후 송(宋)이 통일하면서 북방의 요(遼), 금(金), 원(元)과 차례로 대치하다가 다시 명(明)이 통일하는 등 실로 복잡

한 왕조의 역사를 거쳤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청자도 越州窯, 耀州窯, 汝窯, 南宋官窯, 龍泉窯가 차례로 중심으로 등장하고 다시 주변으로 물러나면서 양식과 제작기술은 물론 미적 관심까지 크게 다른 다양한 청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반면 청자시대 500년간을 시종일관했던 한국은 청자 제작 주체가 갖고 있는 일관된 미적 관심 아래 중국과 지속적 교류를 유지하는 한편 고려 나름의 독자적 길을 걸을 수 있었다.

### 3. 중국청자의 高麗化 과정

한반도에서 청자는 9세기 발생기를 지나 10세기 초기청자의 단계에서 이미 중국과 다른 독자적 조형 요소가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유태는 물론 문양소재나 표현방식 등 제반 조형요소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다.

#### 1) 유태(釉胎)의 고려화

유태(釉藥과 胎土)의 경우 고려는 처음 당말~오대 월주요의 유태를 청자의 이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월주청자의 색은 황갈색에서 녹청색을 띠는 태토가 얇고 투명한(또는 조금 반투명한) 유약층을 통해 비쳐 보이는 유태의 색으로 초창기 고려의 색이 대체로 이와 같은 경향을 띠고 있다. 월주요 이후 요주요(耀州窯)는 유약 자체에 진한 녹청색-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색유(色釉)를 만들어 씌우며, 이어 북송(北宋)말의 여관요(汝官窯)와 남송(南宋)의 관요(官窯), 용천요(龍泉窯) 청자는 투명도가 아주 낮은 유약을 두껍게 씌운다. 이러한 중국 유약의 불투명화 경향과 관련 없이 고려는 처음 선택한 투명한 유약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청자가 중국과 다른 독자적 제작 경향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유약이었다. 월주청자의 투명한 유약을 처음 경험하면서부터 고려의 유약은 맑고 투명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월주청자 이후 중국은 유약이 탁하고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유약이 두꺼워 자연스럽게 진한 색으로 되어 태토(胎土) 표면의 질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문양과 장식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장식을 따로 붙이거나 요철을 강하게 하거나 형태를 과장해 만들어야만 한다. 반면, 한국의 비색 유약은 점차 맑고 거의 투명하게 되는데(미세한 기포에 의해 약간 반투명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태토 면의 질감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서 음각이나 양각은 물론 입체적인 소조상(塑彫像)을 만들 때에도 표면의 느낌이 예상보다 높아진다. 당연히 한국은 문양과 장식을 간결하고 과장이 없는 절제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청자가 우아하고 세련된 조형을 완성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개성적인 유약의 상태가 절대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2) 시문(施文)기법의 고려화

중국은 각 요(窯)마다 고유의 특징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음각과 양각은 물론, 월주요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했던 철화(鐵畫)기법은 후에 광주(廣州) 서촌요(西村窯)에서 유행하게 되고 요주요의 대표적 인화(印花)기법은 임여요(臨汝窯)와 용천요(龍泉窯)에서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흑토와 백토를 바르고 굽어내는 소위 ‘백지흑화(白地黑花)’ 기법은 자주요(磁州窯)의 고유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법이다.

고려는 다양한 중국 각지의 기법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기법들을 고려청자의 중심인 강진요(康津窯)에서 통합과 조화의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에서 단순했던 여러 시문기법들이 고려에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유약이 투명하여 효과적인 시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철화나 퇴화와 같은 유하채의 경우 유약이 맑고 투명하지 않다면 시문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요철이 낮은 양각과 부드러운 음각과의 조화, 철화와 선각, 흑토와 백토를 자유자재로 쓰는 퇴화 등은 모두 투명한 유약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기법들이다. 고려청자의 상징인 상감(象嵌)기법도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통합과 조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마찬가지로, 유하채(釉下彩)로 산화동(酸化銅)을 써서 환원염 번조에서 붉은 색으로 발색되는 진사(辰砂)기법을 창안한 것도 맑고 투명한 유약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감기법은 12세기 비색청자의 전성기에 새롭고 고급화된 장식기법을 탐색하고 있던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청자 조형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흑토와 백토로 새긴 상감은 색상이 선명하여 장식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제 고려인들은 입체적 조형보다 평면적 문양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가장 성행하던 12~13세기에는 문양을 복잡하고 짙 차게 새기지 않고 회화풍의 사실적 소재를 여백을 두면서 간결하게 시문하게 된다. 특히 고려 귀족들이 동경했던 시적(詩的) 이상세계를 소재로 마치 스케치하듯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 2) 문양 소재의 고려화

문양 소재도 기형이나 기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청자는 월주요의 당말(唐末)~오대(五代)의 청자와 같이 거의 문양을 새기지 않는 소문(素文)이 원칙이었다. 이어 10세기후기 오대말~북송(北宋)초 월주청자에 가는 음각기법으로 새긴 정형화된 연판문과 당초문 형식의 식물문과 파도어문, 용문, 쌍나비문, 쌍앵무문 등이 등장하면서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고려는 앞서 말한 몇 가지 소재 가운데 단순 간결한 것을 선별하여 가는 음각선으로 소략하게 새겨 넣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중국식 문양을 모방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청자의 제작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조형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 중국도자를 모방하던 관행적인 제작 태도를 버리고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한 내용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문양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예컨대 모란문의 경우 정형화된 문양의 모방과 관습적 반복을 벗어나 실제 존재하는 자연 속에 모란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도자에 새겨진 모란을 모방하지 않고 한반도의 자연 안에 살아있는 모란꽃을 직접 관찰하고 그리는 방법으로 일대 전환을 한 것이다. “중국→답습→모방”에서 “자연→관찰→창작”으로 바뀐 것이다.

연꽃, 버드나무, 갈대, 오리, 구름, 학 등의 문양의 경우, 중국은 이들을 규범적 형태로 정형화시키고 디자인화하여 인위적인 패턴문양으로 만들지만 고려는 시적(詩的) 상상의 세계로 끌어 들이면서 회화적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 4. 맺음말

한국 청자의 초창기에 중국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그러나 고려사회의 전통적 관습과 미적 정서는 중국으로부터 배워 온 청자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중국 청자문화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자연을 관찰하면서 얻은 새로운 영감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 관념적으로 정형화된 식물 문양은 실제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얻어낸 생명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고 고려인들이 동경하는 서정적이며 시적(詩的) 자연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엄숙하고 중량감 있는 중국의 관념적 형태가 경쾌하며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청자의 색도 중국은 ‘유약(釉藥)의 색’ 이라 하지만 고려는 ‘유태(釉胎)의 색’ 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경우 투명하건 불투명하건 유약 자체의 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청자의 색을 ‘유약색’ 이라고 말하며, 고려는 거의 투명한 유약층을 투과하며 태토의 색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유약과 태토(胎土)의 색이라는 의미에서 ‘유태색’ 이라고 부른다는 점은 두 나라 청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국청자의 색을 상징적이며 권위적이어서 신비하고 비밀스럽다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비색(秘色)으로 부르며, 고려의 색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투명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에서 자연물인 비취옥(翡翠玉)에 견주어 비색(翡色)으로 부른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 청자의 색과 형’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설명들이 한국과 중국 청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문제를 포함하면서 일정한 균형감각으로 분석된 결과는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 사회의 청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中国河南汝窑与张公巷窑产品的比较研究

郭木森(中国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副研究員)

汝窑是中国古代五大名窑之一，它与钧窑、官窑、哥窑、定窑齐名于世。汝窑瓷器胎质细腻，釉色莹润，制作精细，工艺精美，在中国古代陶瓷发展史上占有重要地位。1987年，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第一次对宝丰清凉寺窑址进行试掘，发现典型的御用汝瓷10余件，遂将宝丰清凉寺窑址确定为汝窑，而后又经过七次发掘，终于在2000年找到了御用汝窑的中心烧造区。发现两组烧制汝瓷的窑炉、作坊等相关遗迹，出土了一大批形制较完整且品种丰富的天青釉汝瓷、窑具和模具。这些遗迹和实物标本给我们提供了一个较完整的汝瓷烧造内涵，对揭示汝瓷的特征、釉色及烧造工艺提供了重要的实物资料。近年来，在汝州张公巷又发现一批类汝窑瓷器、窑具和素烧坯残片，对于深入研究汝窑烧造工艺的流传提供了珍贵的实物依据，进一步丰富了中国古代青瓷文化的内涵。本人曾参与了这两处窑址的发掘和整理工作，谨就汝窑、汝州张公巷窑产品的器形、釉色和烧造工艺谈谈自己的一些看法，希望能有助于学术界对汝窑、张公巷窑展开更深入的研究。



## 一. 汝窑的发现与汝州张公巷窑的发掘

汝窑的发现颇受周折，前后历经半个世纪之久。1950年，陈万里先生在河南考察汝窑，首先发现宝丰清凉寺窑址<sup>①</sup>。1977年，冯先铭和叶喆民先生再次考察汝窑时，在宝丰清凉寺窑址附近拣到一片天青釉瓷器残片，经上海硅酸盐研究所化验与北京故宫所藏汝窑盘的化验数据基本相同。1985年在郑州举行的“中国古陶瓷研究会”上，叶喆民先生首次提出宝丰清凉寺“未必不是寻觅汝窑窑址的一条重要线索”<sup>②</sup>。1986年，“中国古陶瓷研究会”在西安召开年会，宝丰县陶瓷工艺厂技术员王留现提供了该窑址采集到的一件汝瓷洗。在这一线索下，上海博物馆派人先后两次到窑址做了调查，并于1987年出版《汝窑的发现》一书，认为清凉寺窑址为汝官窑口<sup>③</sup>。1987年，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对窑址进行了小范围的试掘，发现典型御用汝瓷10余件，从而证实了汝窑址的发现<sup>④</sup>。1988年和1989年对清凉寺窑址进行了第二、三次发掘，发现作坊和房基5座、水井4眼、陶洗池1处和灰坑8个，出土各类完整或可复原的瓷器和窑具2100余件，瓷片上千包<sup>⑤</sup>。御用汝瓷残片极少，未发现任何与御用汝瓷有关的遗迹。1998年春，对该窑址进行了第四次考古发掘，除出土大量青瓷、白瓷、黑瓷和三彩等民用瓷器标本外，在第三烧造区揭露民用青瓷窑炉4座，同时还在第一烧造区清理出作坊3座和灰坑等遗迹。尤其是在第一烧造区北部两个10米×10米探方内出土御用汝瓷200余件（片），引人注目。虽然每次发掘都收获颇丰，但遗憾的是始终未能找到御用汝窑烧造区，因而悬念未解，迷雾丛生。

1990年，根据清凉寺村民提拱的线索，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将工作重点由第一、二、三烧造区转入第四烧造区，在居民住宅外便道上进行了钻探和试掘，试掘面积70平方米。清理出厚达0.1米的天青色御用汝瓷堆积，收获天青色御用汝瓷残片一千余片，同出土的还有不同于汝民窑的匣钵、垫饼、试烧片等窑具和大型建筑构件。2000年，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对该窑址第四烧造区北部进行了第六次考古

发掘，揭露面积500平方米，清理出窑炉15座（马蹄形大窑炉7座，椭圆形小窑炉8座），配釉、上釉作坊2座，陶洗池、澄泥池各1处，排水渠2条，排列有序的陶瓮、缸20余个，灰坑22个和水井1眼，并获得多组重要地层叠压关系和一大批典型天青色御用汝瓷、窑具和模具等<sup>⑥</sup>。2001年和2002年又进行了两次发掘，揭露面积300平方米，清理出椭圆形小窑炉4座、灰坑24个等遗迹。被中外陶瓷界苦苦寻觅半个世纪之久的御用汝窑中心烧造区，历经10余年先后八次考古发掘，终于揭开了它的神秘面纱。2001年6月25日被中国国务院公布为第五批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

汝州张公巷窑位于宝丰清凉寺汝窑址北约40公里。该窑址发现于2000年，同年春和2001年夏，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先后两次配合民房改建工程进行考古发掘，分别揭露10米×2.5米探沟一条和8米×5米探方一个，总面积65平方米。清理出房基5座，灰坑28个，灰沟2条和大口陶缸等遗迹，发现一些类汝窑瓷器残片、窑具和素烧坯残片。2002年，“中国古陶瓷研究年会”在汝州召开，引起了国内外60多位专家的高度重视。2004年，汝州市人民政府拨款20万元，拆迁居民7户。经报请国家文物局批准，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于2004年2月至4月对张公巷东、西两侧分别开挖8米×8米和12米×5米探方两个，发掘面积124平方米，清理出不同时期的房基4座、水井4眼、灶6个、灰坑79个和陶洗池1个。出土了一大批张公巷窑生产的完整或可复原瓷器和窑具。此外，还出土了不少唐、宋、金元、明清不同时期的文物标本<sup>⑦</sup>。

## 二. 汝窑的器形、釉色与烧造工艺

北宋早期是清凉寺窑址的初创时期，以烧制白瓷为主，兼烧少量青瓷和黑瓷。青瓷施釉很薄，釉色尚不稳定，呈现淡青或青灰，器物形制小巧，器表装饰有少量划花和刻花，以菊纹为最常见。北宋中期为该窑的发展时期，这一时期青瓷数量明显增



多，器物种类也有所增加。施釉均匀，釉层变厚。在装饰上新出现了莲花、牡丹、竖条纹和凸线纹。北宋晚期，该窑址达到鼎盛时期，青瓷不仅在数量上超过白瓷，而且器物种类多样。在装饰上增加了印花龙纹，刻花牡丹和海水游鱼等，并在一件器物上刻花和印花并用，即在器物表面刻花、器内印花。釉色以豆青为主，大约在宋神宗元丰年间烧制出天青色满釉支烧瓷器。天青釉的出现，为宫廷御用汝瓷奠定了基础。金元时期该窑逐渐走向衰落，青瓷釉色变深，釉面缺乏光泽，釉层内加杂有褐色小斑点，器形增大，器壁增厚，器体显得笨重。

御用汝瓷的烧造工艺首先表现在窑炉、窑具和模具在质的变化上。初期的窑炉基本上是沿用民窑马蹄形，这一时期的窑室平面可装烧器物30件左右。如14号马蹄形窑炉，前圆后方，由窑门、火膛、窑室、隔火墙、烟囱和护墙六部分组成。窑体总长4.6米，宽2.66米。窑室作横长方形，东西长2.36米，南北宽1.8米。窑室平面上遗留匣钵和匣钵印痕5排，每排7个。其中保存原位的残破匣钵10个，有匣钵印痕的25个。到了御用汝瓷的鼎盛期，由原来的马蹄形大窑炉，改进为椭圆形小窑炉。值得一提的是，此类窑炉皆两窑并列连体，单体窑炉长1.77米，宽1.4米，窑室面积0.7平方米左右。每窑装烧与直径20厘米匣钵配套器物10件左右。御用汝窑的初期，绝大多数匣钵外壁不涂抹耐火泥，中期以后，外壁涂抹耐火泥逐渐增多，直到御用汝窑的鼎盛阶段，90%以上匣钵采用外壁涂抹耐火泥工艺。支烧工艺，初创阶段支钉粗壮，饼与支钉皆用一般耐火泥土制成，支钉与饼往往容易脱落。随着汝瓷工艺的成熟，支烧垫饼采用高温优质瓷土制成，支钉小而尖，同时出现大量垫圈工艺，垫圈支烧的出现，不仅制作简易、坚固，而且还解决了高支烧器物垫饼支烧不足的缺陷。

清凉寺御用汝窑不仅窑炉、窑具有其独创之处，模具也别具一格。民窑除印花外，素面器物一般不使用模制，多采用手拉坯工艺制成。而御用汝瓷无论素面还是有纹饰，只要能使用模具的器物，都采用的是模制工艺，如洗、盘、钵、盆、碟、炉和

部分碗、盏、套盒等。器物外壁有纹饰的用外模，内外壁无纹饰者皆用内模。大型器或不使用模具的器物如各类瓶、尊、器盖等，以手拉坯工艺为主。

御用汝瓷的烧造工艺，即用各类匣钵一钵一器烧制而成。完全支烧的器物有各类洗（卧足、深腹平底）、盘（卧足、假圈足、三足、平底）、碟、钵、盆（卧足、假圈足、四足、平底）、尊等。碗类器，除卧足皆支烧外，直圈足花式口碗也有满釉支烧，个别的敞口小矮圈足碗支烧于圈足面上，垫烧占绝大多数。瓶的种类繁多，满釉支烧仅见于盘口折肩瓶和个别矮圈足小型瓶类器上。盏托、盏、套盒比较特殊，这类器物以垫烧为主，满釉者，三枚或五枚支钉横置在圈足底面上，个别较矮套盒支烧在盘底面上。盏（盖碗）亦有如此。一般情况下支钉的多少与器物的大小有关，常见的支钉有三枚和五枚，六枚支钉仅见于椭圆形水仙盆（图版一）。

御用汝瓷胎骨薄而坚，质灰或灰中泛褐，俗称“香灰色”。釉色莹润凝厚，视如碧玉，有天青、粉青、淡天青、月白、青绿等各种釉色，实际上可归纳为天青、青绿两种釉色97来概括。值得注意的是，青绿釉在传世品中绝少。从发掘出土大量瓷片标本观察，以天青类为主，釉色变化大（粉青、淡天青、月白、卵青等等），青绿釉变化小，基本上保持原色不变。这两种基本色泽只是在烧制停火过程中还原气氛的不同而产生出所谓的淡天青、青灰、月白等釉色，很难说是当时人为有意区分的。从发掘出土的数万片（件）标本中就很难找到釉色完全一致的器物。色泽的不同，除了烧制、停火和还原气氛因素外，土蚀的作用也不可忽视，传世品还可能存在着氧化作用。在传世汝瓷中，一般不见印花和刻花装饰。近年来发掘出土不少器物上有龙纹、莲花、牡丹等纹饰，并发现有不少精美镂空装饰和雕塑作品，这在以釉色、开片取胜的汝瓷传世品中实属罕见。

据不完全统计，汝窑中心烧造区出土的天青釉汝瓷占98%以上。与汝窑烧造无关的民用瓷和三彩器等占不足2%。器形有碗、盘、碟、盏、盏托、器盖、钵、洗、盆、盒、套盒、瓶、炉、壶、尊等20余种，40多品类。



碗 是天青釉汝瓷最多的器物之一，并且形制繁多，有卧足、高直圈足、矮直小圈足和葵花式大圈足等。有纹饰的仅见于深腹高直圈足碗。

盘 按腹部的差异可分为五种。1、侈口，折腹。青釉，器表釉下刻竖直线纹，盘内底刻牡丹花卉，盘壁饰牡丹叶纹。此类盘仅见于14号窑炉，属汝窑的创烧初期。2、花式口，瓜棱腹，平底内凹。3、侈口，曲腹，圈足略外撇。4、大盘，弧腹，器形厚重，卧足。值得一提的是，凡此类盘都是青绿釉。5、直腹，浅盘，平底，三足，底面上有5枚支钉痕。腹口处饰两周暗弦纹。器表内土蚀不均，从局部观察，应为天青釉。口径13.6厘米，底径13.2厘米，高3.8厘米（图版二）。

钵 皆模制。有敛口和敞口两种，形制大小不一。外腹有纹饰的以牡丹花卉、水波纹和莲花图案为主，内底常见有模印龙纹图案。

盆 器形较小，与民用青瓷盆有所不同。常见的有板沿假圈足、瓜棱腹平底、唇口直圈足、窄板沿卧足、椭圆形四足和敞口假圈足等。前四种以模制为主，后两种手制。除唇口直圈足垫烧和椭圆形水仙盆是六支钉支烧外，其余皆五支钉支烧。口长26.6厘米，口宽18.5厘米，底长22.6厘米，底宽14.8厘米，高7.6厘米（图版三）。有纹饰的为刻花，仅见于敞口假圈足盆，该盆出现在汝窑的早期地层和窑炉内，当是天青釉创烧阶段的作品。

盒 品类不多，器形较大。有深腹高圈足和浅腹矮圈足两种，皆垫烧。浅腹矮圈足者较多，近似球状体，模制。盖面常见有龙纹图案，这在以釉色取胜的汝窑传世品中实属罕见。口径16.4厘米，底径16厘米，通体高13.2厘米（图版四）。

洗 为汝窑发掘出土数量最多的器物之一。常见的有深腹和浅腹两种，深腹的器形较大，平底，五支钉支烧。浅腹的皆卧足满釉支烧，以五支钉支烧为主。天青釉，釉色莹润。口径14.8厘米，底径10.3厘米，高3.9厘米（图版五）。

盏（盖碗） 有手制和模制两种。手制的与汝民窑豆青釉盏接近，不同的是制作工艺讲究，釉色天青。有垫烧，也有满釉的三支钉在圈足面上，这类盏较少，视为

汝窑早期作品。另一类盖模制，与碗的形制接近，分为假圈足和圈足两种，有支钉痕三枚，横置于圈足面上，底面上的极少，无支钉者垫烧，口径10.1厘米，底径4.7厘米，高5厘米（图版六上）。

盖托 有三种形式。一种盘心凸起，高圈足，有纹饰的见于托腹四周。以垫烧为主，满釉者五支钉在圈足面上，个别的五支钉在托盘下。托径5.7厘米，盘径17.4厘米，圈足径12.4厘米，高4.5厘米（图版六下）。另一种花式盘，托腹作碗状与圈足相通，以垫烧为主。第三种制作工艺最简单，作平盘状，盘心凸起一圆环，皆满釉五支钉支烧。

炉 有莲叶、莲花卧足和三足两种形制。整体制作工艺复杂，由四部分组成，上承子口盖（缺），炉身作仰莲状，高柄，莲叶状底座。由模制、手制结合而成。口径15厘米，底径16厘米，高13.6厘米（图版七）

瓶 也是种类较多的器物之一。有梅瓶、盘口折肩瓶、小口细颈瓶、敞口鹅颈瓶等。以手拉坯工艺为主，模制的较少。有圈足、假圈足、平底三种。圈足和假圈足绝大多数底面无釉，垫烧；平底的皆满釉，五支钉支烧。器表有纹饰的不多，常见的有缠枝莲花、牡丹和龙纹图案。有刻花、划花和模印三种装饰手法。

综上所述，汝窑中心烧造区出土的器物种类齐全，既有不少陈设用瓷，又有大量的日常生活用具；为我们鉴定鉴赏汝窑传世品，开阔了视野，进而对汝窑御用品的历史全貌及其产品器类特征和装饰手法有了全新的认识。

### 三. 张公巷窑与汝窑器形、釉色、烧造工艺的异同

张公巷虽然发掘的面积不大，所揭露的地层特别复杂，出土的遗物种类繁多，但除青釉瓷之外，白釉、黑釉、豆青釉、钧釉和白地黑花瓷等与该窑址没什么直接关

系。所谓的青釉瓷，是张公巷窑烧制的唯一产品。从整体上看，它既不同于临汝窑的豆青釉，也有别于宝丰清凉寺汝窑的天青色。釉色可分为淡青、灰青、青绿和天青等。常见的以薄胎薄釉为主，釉面玻璃质感强，极少能见到宝丰清凉寺的汝窑天青色。胎骨尽管变化不大，但比较复杂，有粉白、灰白、洁白和少量浅灰，几乎不见汝窑的香灰胎。胎质细腻坚实，为汝窑所不及。张公巷窑产品釉色虽然润泽，实不如汝窑釉质凝厚滋润。器形有各类碗（图版八）、花口折腹圈足盘、花口板沿平底盘（图版九）、椭圆卧足洗、椭圆平底洗、板沿平底洗、四方平底盘、圆形平底碟、盘口折肩瓶（图版十）、鹅颈鼓腹瓶、盖碗、碗托（图版十一）、堆塑熏炉、四方委角套盒和器盖等。带圈足的器物以直圈足为主，卧足的较少，个别的似卧足又不太明显。汝窑则相反，卧足的占多数。张公巷窑器底有支钉痕的大多数是非常规整的小米粒状，支钉分三、四和五枚粘结在垫饼上（图版十二），此种支烧工艺见于汝窑的初期阶段。碗、盘和各类瓶圈足上常见透明釉露胎，部分圈足底面无釉，这些器物往往采用垫烧，也有少量支烧的。

窑具以匣钵、垫饼和垫圈为主。匣钵有浅腹漏斗状、深腹漏斗状，浅腹筒状和深腹筒状四种。值得注意的是，这些匣钵外壁涂抹耐火泥的占60%左右，此工艺仅见于宝丰清凉寺御用汝窑。

依据张公巷窑出土的匣钵外壁涂抹耐火泥、支烧工艺和较多类汝窑瓷器特征，表明汝窑与张公巷窑是承前启后的关系，即汝窑早，张公巷窑晚，这一点已被国内外陶瓷界所公认。关于张公巷窑的具体年代是目前争论的焦点，2004年5月在河南郑州召开巩义黄冶唐三彩窑、汝州张公巷窑学术研讨会，与会的国内外专家、学者50多人，多数专家认为张公巷窑是文献上记载的北宋五大名窑“汝、钧、官、哥、定”中的官窑；也有个别专家认为张公巷窑的年代晚到金代以后。

从发掘所揭示的地层堆积情况看，张公巷从宋初至今是居民居住生活区，尤其是元代以后张公巷处于城镇的繁华地段，地层堆积和打破关系非常复杂，从考古地层学



角度分析，笔者认为张公巷窑的年代目前还缺乏足够的证据，还有待进一步发掘和研究。

（后记：前不久笔者看到一部分韩国12世纪高丽青瓷，其中的盏托、盘口折肩瓶、敞口模印莲花碗、梅瓶、深腹平底洗、鸭形器盖等器物的造型与汝窑同类器非常接近，可以说仿汝达到了形神兼备的地步。值得注意的是汝窑中的套盒有圆形和六方委角两种，不见四方委角套盒。韩国高丽仁宗（1146年）王陵出土的一件青瓷四方委角套盒和一件盖碗与张公巷窑同类器完全一样或接近<sup>⑧</sup>。表明韩国12世纪高丽青瓷不仅仿汝窑，也有仿张公巷窑的因素。当然，这是笔者一种不成熟的推测，是值得注意和探讨的一个问题。）

#### 注释

① 陈万里：《汝窑的我见》页4655，《文物参考资料》1951年2期。

② 叶喆民：《钧窑与汝窑》，《河南钧瓷汝瓷与三彩》页10、11，紫禁城出版社，1987年10月。

③ 汪庆正等：《汝窑的发现》，上海人民美术出版社，1987年10月。

④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址的调查与试掘》页2，《文物》1989年11期。

⑤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址第二、三次发掘简报》页140，《华夏考古》1992年。

⑥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2000年发掘简报》页4，《文物》2001年第11期。

⑦ 郭木森：《河南汝州张公巷窑考古获重大发现》，《中国文物报》2004年5月26日第1版。

⑧ [韩]郑良谟著，[韩]金英美译：《高丽青瓷》页130，文物出版社，2000年。



## 중국 하남 여요와 장공항요 생산품의 비교 연구

곽목삼(郭木森,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 부연구원)

여요(汝窯)는 균요(鈞窯), 관요(官窯), 가요(哥窯), 정요(定窯)와 함께 중국 고대 5대 명요의 하나이다. 여요 자기는 태질이 세밀하며, 유약이 윤기 있고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중국 고대 도자 발전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하남성 문물 고고 연구소의 보풍 청량사(寶豐 淸涼寺) 요지에 대한 첫 번째 시굴에서 전형적인 어용(御用) 여자기(汝瓷) 10여 점을 발견함으로써 보풍 청량사 요지를 여요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 후 7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어용 여요의 중심 소성제조(燒制)구역이 발견되었다. 두 지역에서 여자기의 소성제조 가마, 공방 등 관련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형태가 비교적 완전하고 품종이 풍부한 천청요(天靑窯) 여자기와 가마도구, 성형 도구가 대량 출토되었다. 발굴결과를 통해 여요자기 제작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얻었으며, 이는 여요의 특징, 유색과 소성제조 공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최근에 여주 장공항(汝州張公巷)에서도 여요 자기와 가마도구, 초벌편이 다시 발견되어 여요의 흐름을 깊이 연구하는데 귀중한 실증 자료가 되었으며, 중국 고대 청자문화의 가치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였다. 필자는 이 두 곳의 요지의 발굴과 정리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요, 여주 장공항요 생산품의 기형, 유색과 제작기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니 학계가 여요와 장공항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펼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 여요의 발견과 여주 장공항요의 발굴

여요의 발견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0년, 진만리(陳万里 Chen Wan Li) 선생이 하남에서 여요를 조사할 때 보퐁 청량사 요지를 발견했다.<sup>1)</sup> 1977년 풍선명(馮先銘 Feng Xian Ming)과 엽철민(叶喆民 Ye Zhe Min) 선생이 재차 여요를 조사하면서 보퐁 청량사 요지 부근에서 천청요 자기편을 한 점 수집하였는데, 상해 규산염 연구소 화학실험 결과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여요 반(盤)과 화학분석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1985년 정주에서 열린 《중국고도자연학회》에서 엽철민 선생은 처음으로 보퐁 청량사가 " 여요지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sup>2)</sup>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1986년 서안(西安)에서 《중국고도자연학회》의 연례회의가 열렸을 때, 보퐁현 도자공예공장기술원 왕유현(王留現 Wang Liu Xian)이 청량사요지에서 채집한 여요 세(洗)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단서에 기초하여 상해 박물관은 두 차례 요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1987년 간행된 『汝窑的发现』이라는 책에서 청량사 요지가 여요의 유적임을 인정하였다.<sup>3)</sup> 그리고 1987년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도 청량사 요지에 대해 소규모의 시굴을 진행하여 전형적인 어용 여자기 10여 점을 발견함으로써 여요지의 발견이 실증되었다.<sup>4)</sup> 이후 1988년과 1989년 계속된 제2·3차 발굴 조사에서 공방과 건물부지 5개소, 우물 4개소, 도세지(陶洗池) 1개소과 재 구덩이(灰坑) 8개소를 발견했으며, 완형과 복원 가능한 자기 편 및 가마 도구 2100여점과 1000포대가 넘는 청자 편을 수습하였다. <sup>5)</sup> 그러나 어용 여자기 편은 매우 소량이었으며 어용 여자기와 관련된 어떤 생산시설도 발견되지 않았다. 1998년 봄, 제4차 발굴조사에

1) 陈万里, 「汝窑的發見」, 『文物参考资料』 1951年 2期, pp. 46~55

2) 叶喆民, 「钧窑与汝窑」, 『河南钧瓷汝瓷与三彩』, 紫禁城出版社, 1987年10月, pp. 10~11

3) 汪慶正 외, 『汝窑的发现』, 上海人民美术出版社, 1987年 10月

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宝丰清凉寺汝窑址的调查与试掘」, 『文物』 1989年 11期, p. 2

5)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宝丰清凉寺汝窑址第二、三次发掘简报」, 『华夏考古』 1992年, p. 140

서는 청자, 백자, 흑자와 삼채 등 민용 자기 파편이 대량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제3소성제조 구역에서 민수용 청자가마 4기가 확인되었다. 동시에 제1 소성제조구역에서 공방 3개소와 재구덩이(灰坑) 등의 유적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제1 소성제조구역 북쪽에 설치한 10m×10m 그리드(探方) 내에서 발견된 어용 여자기 파편 200여 점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매년 발굴조사마다 매우 풍부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끝내 어용 여자기 생산시설이 발견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990년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는 청량사 주민의 제보를 근거로 조사의 중심을 제1·2·3 소성제조 구역에서 제 4소성제조구역으로 옮겼는데 주택가 골목길에서 실시된 시굴조사는 시굴 면적이 70㎡가량이었다. 두께가 0.1m인 천청색 여자기 퇴적층을 정리해서 천청색 어용 여자기 편 1000여 점을 수습하였고, 이 외에 민수용 여요에서 볼 수 없는 갑발(匣鉢), 원반형 받침도구(墊餅), 시편(試燒片) 등 가마도구와 대형 건축 부재도 출토되었다. 2000년에는 제 4 소성제조 구역 북쪽 500㎡의 면적에 대해 제 6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15기의 가마(말굽모양 대형 가마 7기와 타원형 소형가마 8기), 시유공방 2개소, 도세지(陶洗池) 및 진흙 연못(澄泥池) 각 1개소, 배수로 2개소, 배열되어 있는 도기 항아리(陶瓮)와 단지(缸) 20여개, 재구덩이(灰坑) 22개소와 우물 1개소, 그리고 여러 층의 중요 지층 퇴적 관계와 전형적인 천청색(天青) 어용 여자기 한 더미, 가마도구와 상형도구 등이 출토되었다.<sup>6)</sup> 2001년과 2002년에는 두 차례 걸쳐 면적 300㎡를 발굴하여 타원형 소형가마 4기와 재구덩이(灰坑) 24개소 등의 유적을 정리하였다. 중국과 외국의 도자계에서 반세기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낸 어용 여요 중심 소성제조 구역은 10여 년 동안 8차례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거쳐 마침내 신비한 베일을 드러냈다. 2001년 6월 25일 중국 국무원은 이 요지를 다섯 번째 중국 중점문물보호단위(中國重点文物保护单位)으로 공표하였다.

여주 장공항요지는 보퐁 청량사 여요지에서 북쪽으로 40km에 위치해 있다. 이 요지는

6)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宝丰清凉寺汝窑2000年发掘简报」, 『文物』2001年 第11期,



2000년에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봄과 2001년 여름에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가 두 차례 민가 재건축 공사와 함께 각각 10m×2.5m의 트렌치(探沟)와 8m×5m의 그리드(探方) 1개를 시굴하였으며, 총면적은 65㎡이다. 조사 결과 건물지 5개소와 재구덩이(灰坑) 28개소, 재 고랑(灰口) 2줄과 입 큰 단지 등 유적을 정리했으며, 일부 여요자기와 유사한 파편, 가마도구 및 초별구이 편을 발견했다. 2002년 《중국고도자연구》 연례회의가 여주(汝州)에서 열렸을 때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04년 여주시 인민 정부에서 20만위안을 지급하여 거주민 7가구를 이주시켰으며, 국가 문물국의 허가를 얻어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가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장공항 동서 양측을 각각 8m×8m와 12m×5m의 그리드로 구획하고 총면적 124㎡를 발굴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시기의 건물지 4개소, 우물 4개, 부뚜막(灶) 6개, 재구덩이(灰坑) 79개와 도세지(陶洗池) 1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장공항요에서 생산된 완형 또는 복원가능한 자기 편과 가마도구들이 대량 출토되었다. 이밖에 많은 양의 당(唐), 송(宋), 금원(金元), 명청(明清)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sup>7)</sup>

## 2. 여요의 기형(器形), 유색과 소성제조 공법

청량사 요지의 초창기는 북송 초기이며, 주로 백자를 제작하였고 청자와 흑자도 소량 제작하였다. 청자는 매우 얇게 시유(施釉)되었으며, 유색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서 담청 혹은 청회색을 띤다. 그릇의 형태는 작고 정교하며, 표면의 장식은 각화(刻花)나 획화(劃花)기법의 국화 무늬가 가장 많다. 북송 중기는 이 요의 발전시기로서 청자 생산량이 뚜렷이 증가하였고, 그릇의 종류도 다소 증가하였다. 유약은 균일하고 두꺼워졌으며, 장식무늬는 연꽃(蓮花), 모란(牡丹), 세로 줄무늬(豎條)와 볼록한 줄무늬(凸線)가 새로이 출현했다. 북송 말기는 청량사 요지가 가장 흥성한 시기이다. 생산량에서는 청자

7) 郭木森, 「河南汝州张公巷窑考古获重大发现」, 『中国文物报』 2004年 5月 26日 第1版

가 백자를 넘어섰고, 기물 종류도 다양해졌다. 장식은 인화(印花)기법의 용무늬가 증가하고, 모란이나 바다 물고기는 각화(刻花)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그릇 하나에 각화(刻花)와 인화(印花)가 병용되기도 하였는데 그릇의 외면은 각화로, 그릇의 내면은 인화로 장식하였다. 유색이 주로 녹두색인 것은, 대략 송 신종(宋神宗) 원풍년간(元豐年間)에 제작된 천청색 만유지소(滿釉支燒 : 전면에 시유하고 굽 안바닥에 지정받침을 받쳐구운)자기일 것이다. 천청유의 출현은 궁정 어용 여자기 생산의 기초가 되었다. 청량사 요지는 금원(金元) 시기에 점차 쇠락하였으며 청자의 유색은 짙게 변했다. 유약은 광택이 부족하고, 유층 안에는 갈색의 작은 반점이 많아졌다. 기형은 커졌으며 기벽은 두터워져 기체는 육중해 보였다.

어용 여자기의 제작기법은 먼저 가마와 가마 도구 및 성형도구(틀)이 질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완성된다. 초기의 가마는 기본적으로 원래의 민요 말굽형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 시기의 소성실바닥은 그릇 30개 가량을 놓을 수 있었다. 14호 말굽형 가마와 같은 것은 앞은 둥글고 뒤는 사각형이며, 요문(窯門), 아궁이(火膛), 요실(窯室), 칸막이 벽(隔火牆), 굴뚝(烟囪)의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마는 총 길이 4.6m, 넓이 2.66m이며, 소성실은 가로로 된 직사각형 형태이고, 동서 길이 2.36m, 남북 넓이 1.8m이다. 소성실 바닥에는 갑발과 갑발 자국이 7개씩 5줄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자리에 남아 있는 갑발(匣鉢)이 10개, 갑발 자국만 남아 있는 것 25개이다. 어용 여자기는 흥성기에 이르러 원래의 말굽형 대형 가마가 타원형 소형 가마로 변화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종류의 가마는 두 가마가 병렬로 붙어 있고, 각각의 가마 길이는 1.77m, 넓이 1.4m, 소성실 면적은 0.7㎡ 가량이다. 각각의 가마에는 그릇을 넣은 직경 20cm인 갑발 10개 가량을 놓았다. 어용 여자기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갑발 외면에 내화토(耐火泥)를 바르지 않았으나 중기 이후에는 외면에 내화토를 바른 것이 증가하고, 어용 여요의 흥성기에 이르러서는 90%이상의 갑발(匣鉢) 외면에 내화토를 발랐다. 굽받침법은 초창기에 지정이 굽고 단단하였으며, 원반 모양 받침과 지정이 모두 일반 내화토로 만



들어져서 지정과 받침이 자주 떨어졌다.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정이 붙은 원반모양 받침(支燒墊餅)은 내화도가 높은 양질 자토로 만들었으며, 지정은 작고 뾰족했다. 동시에 대량으로 출현한 고리모양 받침(墊圈)의 출현으로 제작이 쉬워지고 기물이 견고해졌을 뿐 아니라 굽높은 기물을 받치기 어려운 원반모양 받침의 결함을 보완해 주었다.

청량사 어용 여자기는 가마와 가마도구가 독창적인 것은 물론 그릇의 형태와 문양을 찍어내는 틀도 다른 품격을 지녔다. 민요는 인화기법이외에 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용 여자기는 세(洗), 반(盤), 사발(鉢), 분(盆), 접시, 화로(爐)와 일부 완(碗), 잔(盞), 합(盒) 등과 같이 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모두 틀로 찍어 만들었다. 그릇 외면에 무늬가 있는 것은 바깥 쪽의 틀을 사용했으며, 무늬가 없는 것은 모두 안쪽 틀을 사용했다. 다만 병(瓶), 주기(尊), 그릇 뚜껑(器蓋) 등 대형 기물이나 모형 틀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은 모두 수작업으로 성형하였다.

어용 여자기의 소성은 갑발(匣鉢) 하나에 그릇 한 점씩 넣어 구웠다. 완전히 지소한 기물로는 각종 세(洗, 외족 및 몸통이 넓은 평저), 반(盤, 외족 및 가권족, 삼족, 평저), 접시, 사발(鉢), 분(盆, 외족 및 가권족, 사족, 평저), 준(尊) 등이 있다. 완 종류는 외족 외에 직 권족화식입구완(直圈足花式口碗)도 지소되었으며, 입이 벌어진 작은 권족완(敞口小矮圈足碗)은 일부 굽 접지면에 지정받침을 받쳤으나 대부분 고리모양받침을 받쳐 구웠다. 병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전면에 시유하고 지정받침을 받쳐구운 모습은 반구절 견병(盤口折肩瓶)과 일부 낮은 권족소형병(矮圈足小形瓶)같은 기물에서만 보인다. 잔받침(盞托), 잔(盞), 찬합(套盒)은 비교적 특수해서 고리모양 받침을 받쳐 구웠는데(墊燒) 유약이 씌어진 상태에서 3개 혹은 5개의 길쭉한 받침자국이 굽접지면에 남아 있다. 몇몇 낮은 찬합은 굽 안바닥에 지정받침을 받쳐 구웠다. 잔(盞, 뚜껑 그릇(蓋碗)) 역시 이와 같다. 일반적으로 지정의 수량은 기물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많게는 3개나 5개의 지정이 보이며, 6개 지정은 타원형의 수선화 접시(水仙盆)(도판 1)에서만 발견된다.

어용 여자기 몸체는 얇고 단단하며, 태토는 회색이거나 회색 안에 갈색이 퍼져 있어서

속칭 "향회색"이라 불린다. 유색은 매끈하고 두꺼워서 벽옥 같이 보이며, 천청, 분청, 담천청, 옅은 남색, 청록 등 각종 유색이 있는데, 실제로는 천청이나 청록의 두 가지 유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청록색 유는 전세품 중에는 비교적 적다. 발굴 출토된 대량의 자기 편을 관찰하면 주를 이루는 천청색류는 분청, 옅은 천청, 옅은 남색, 난청색 등 유색의 변화가 큰데 비해, 청록색 유약은 변화가 적으며 기본적으로 원래 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종류는 기본색이 소성과정중에 환원의 변화에 따라 소위 담천청, 청회색, 옅은 남색 등으로 변화된 것일 뿐 당시에 일부러 구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발굴에서 출토된 수만 편의 표본 중에 유색이 완전히 일치하는 기물을 찾기는 어렵다. 색과 광택이 다른 소성과 불을 끄고 환원하는 요소 외에 토지 부식 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세품에는 산화 작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전세 여자기 중에 일반적으로 인화(印花)와 각화(刻花)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발굴 출토한 기물에는 용무늬, 연꽃, 모란 등의 무늬가 있으며, 아름다운 투조(鏤孔) 장식과 조각 작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유색이나 개편으로 얻어진 여자기 전세품 중에는 보기 드문 것에 속한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여요 중심 소성제조 구역에서 출토된 천청유 여자기는 98%이상을 차지한다. 여요 소성제조와 무관한 민용 자기와 삼채 기물 등은 2%도 되지 않는다. 기형은 완(碗), 반(盤), 접(碟), 잔(盞), 잔받침(盞托), 그릇 뚜껑(器蓋), 발(鉢), 세(洗), 분(盆), 합(盒), 받침(套盒), 병(瓶), 로(爐), 호(壺), 존(尊) 등 20 여종이며, 40개 품종이다.

완(碗) — 천청유 여요에서 가장 많은 기물 중 하나며 형태가 다양하다. 외족, 높고 곧은 권족, 낮고 곧은 작은 권족과 해바라기식 대형 권족 등이 있다. 문양이 있는 것은 두터운 데 높고 곧은 권족 완에서만 보인다.

반(盤) — 배(몸통) 부분의 차이에 따라 5종류로 나눈다. 1. 입이 크고 배가 꺾여 올라

간다. 청유이며 기물 표면 유약 밑에 세로 줄무늬가 새겨져 있고, 인쪽 밑 부분에는 모란화초가 새겨져 있다. 기벽 부분에는 모란 잎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런 류의 반은 14호 가마에서만 보이며 여요 초기에 속한다. 2. 꽃 모양의 구연부, 참외 모양의 몸통, 평평한 바닥이며 안이 오목하게 들어갔다. 3. 입이 넓고 배 부분이 굽어 있으며, 권족이 약간 밖으로 벌어졌다. 4. 큰 그릇(쟁반)으로 배 부분이 궁형이며 기형이 중후하고 굽은 외족이다. 이런 종류의 반은 모두 청록유를 시유한 점이 특이하다. 5. 배 부분이 곧고 높이가 낮다. 바닥이 편평하며 삼족이 부착되어 있는데 굽 안바닥에 5개의 지정자국 있다. 배 부분에 활 모양이 두 번 들려져 있다. 기물 표면과 내부에 흙이 부식되어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관찰하면 천청유이다. 입지름은 13.6 센티미터, 굽지름 13.2 센티미터, 높이는 3.8 센티미터이다. (도판2)

발(鉢) — 모두 틀로 만들어졌으며, 구연이 오므라진 것과 벌어진 것 두 종류가 있다. 형태와 크기는 여러가지로 외복부에 무늬가 있는 것은 모란화분, 물결문양과 연꽃 도안을 주로 하며, 인쪽 밑에는 틀로 용무늬 도안들을 찍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분(盆) — 기형은 비교적 작고 민간용 청자 분과 다소 다르다. 자주 보이는 것은 판형 가권족(板沿假圈足)과 참외형 배 평저(瓜棱腹平底), 입구 직권족(唇口直圈足), 좁은 가장자리와 외족(窄板沿卧足), 타원형 사족(椭圆形四足)과 입이 벌어진 가권족(敞口假圈足) 등이다. 앞의 4종은 틀로 찍어서 만들며 뒤의 두 종류는 수작업을 한다. 입구 직권족(唇口直圈足)은 점소하고 타원형 수선화 접시(椭圆形水仙盆)가 6지정 지소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5지정으로 지소하였다. 입구 길이 26.6cm, 넓이 18.5cm, 밑 길이 22.6cm, 밑 넓이 14.8cm, 높이 7.6cm이다.(도판3) 문양이 있는 것은 각화이며 벌어진 입구 가권족분(敞口假圈足盆)에서만 보인다. 이 분은 여요의 초기 지층과 가마에서 출현하였으며 천청요 소성초기단계의 작품이다.

합(盒) — 종류가 많지 않다. 기형이 비교적 크다. 깊은 배 높은 권족(深腹高圈足)과 얇은 배 낮은 권족(淺腹矮圈足)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점소하였다. 얇은 배 낮은 권족



(淺腹矮圈足)이 비교적 많으며 공 모양과 흡사하며 틀로 제작했다. 뚜껑 면에 용무늬 도안이 있으며, 이는 유색으로 얻은 여요 전세품 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입지름은 16.4cm, 굽지름은 16cm, 전체 높이는 13.2cm이다.(도판 4)

세(洗) — 여요 발굴 출토된 것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이다. 많이 보이는 것은 깊은 배(深腹)과 얇은 배(淺腹) 두 종류이며, 깊은 기형이 비교적 많다. 평평한 바닥에 5개 지정으로 지소하였다. 얇은 배는 외족이 유약으로 덮여서 지소되었고 5지정 지소를 주로 하였다. 천청유이고 유색이 매끈하고 투명하다. 입지름은 14.8cm, 굽지름은 10.3cm, 높이는 3.9cm이다.(도판5)

잔(盞)(뚜껑 있는 그릇) — 수공예와 모형 틀로 만든 두 종류가 있다. 수공한 것은 여민요의 녹두요잔(豆靑窯盞)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제작 공법이다. 유색은 천청색이다. 점소한 것이 있으며 권족이 유약으로 덮여 있고 3지정 한 것도 있다. 이런 종류의 잔은 비교적 적는데 여요 초기 작품으로 보인다. 그밖에 한 종류는 틀로 제작하였는데 완의 형태와 비슷하다. 가권족과 권족 두 종류로 나뉘며 지정자국이 3개 있다. 권족 위에 세로로 위치해 있으며, 바닥에 있는 것은 매우 적다. 지정이 없는 것은 점소하였다. 입지름은 10.1cm, 굽지름은 4.7cm, 높이는 5.0cm이다.(도판6 상)

잔받침(盞托) — 3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그릇 중심이 볼록하고 높은 권족이다. 무늬가 있는 것은 배 부분 4주위에 보인다. 점소를 주로 하며 유약으로 덮인 것은 권족 위에 5지정이다. 일부 5지정은 받침 밑에 있다. 받침 둘레 5.7cm, 접시 둘레 17.4cm, 권족 둘레 12.4cm, 높이 4.5cm (도판 6 하). 그밖에 꽃모양 반은 받침의 배 부분이 그릇 모양을 하여 권족과 똑같으며, 점소를 주로 한다. 세 번째 제작 공법이 가장 간단하다. 평평한 큰 접시 모양을 하며, 접시 중심은 볼록하게 되어 있다. 모두 유약이 덮여 있고 5지정 지소를 하였다.

로(爐) — 연꽃 외족과 삼족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체를 제작하는 공법이 복잡하여 4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뚜껑, 연꽃 모양의 몸체, 높은 손잡이와 연꽃 잎 모양



밑받침이다. 틀로 찍어내는 방법과 물레성형을 병용하여 제작하였다. 입지름은 15cm, 굽지름은 16cm, 높이는 13.6cm이다. (도판7)

병(瓶) — 역시 종류가 가장 많은 기물 중 하나이다. 매병(梅瓶), 접시형 입구 절건병(盤口折肩瓶), 입이 작고 목이 가는 병(小口細頸瓶), 입이 벌어진 거위목병(敞口鵝頸瓶) 등이 있다. 물레성형을 주로 하며 틀로 제작한 것은 비교적 적다. 굽은 권족, 가권족, 평평한 바닥의 3종류가 있다. 권족과 가권족의 절대 다수에 유약이 없고 점소하였다. 평평한 바닥은 모두 유약이 씌워져 있으며 5지정으로 지소하였다. 기표면에 문양이 있는 것은 적고 많이 보이는 것은 연꽃, 모란과 용무늬 도안이 휘감아져 있는 것이고, 각화, 획화와 틀을 찍은 세 종류의 장식 수법이 있다.

종합해서 말하면 여요 중심 소성제조 구역에서 출토된 기물은 종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며 진열용 자기나, 일상 생활 공구들도 대량으로 있다. 여요 전세품을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혔으며, 여요 어용품의 역사의 배경과 생산품들의 품종마다 특징과 장식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장공항요(張公巷窯)와 여요(汝窯)의 기형, 유색, 소성 제조공법의

#### 같은 점과 다른 점

장공항은 발굴한 면적이 크지 않으나 드러난 지층이 매우 복잡하며 출토된 유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청유 자기 외에는 백유(白釉), 흑유(黑釉), 녹두색유(豆靑釉), 균유(鈞釉)와 백지흑화자기(白地黑花瓷) 등은 이 요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소위 청유자기는 장공항 요에서 소성 제조한 유일한 생산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임여요(臨汝窯)의 녹두요(豆靑窯)와도 다를 뿐 아니라 보퐁 청량사 여요의 천청색과도 다

른 점이 있다. 유색은 담청, 회청, 청록과 천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주 보이는 것은 얇은 태와 얇은 유를 주로 하며 유약면의 투명감이 매우 강하다. 보풍 청량사의 여요 천청색은 볼 수 없다. 태토는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복잡하다. 백분색(粉白), 회백색(灰白), 순백색(潔白)과 소량의 열은 회색(淺灰)을 띠나 여요와 같은 향회색태(香灰胎)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태질은 세밀하고 견고하나 여요에 미치지 못한다. 장공항 생산품의 유색은 윤기가 있으나 실제로 여요 유약의 농후함과 매끈함보다 못하다. 기형은 각종 완(碗)(도판 8), 화형절복권족반(花口折腹圈足盤), 가장자리가 편평한 화형평저반(花口板沿平底盤)(도판 9), 타원외족세(橢圓臥足洗), 타원평저세(橢圓平底洗), 판형 가장자리 평저세(板沿平底洗), 사각형 평저반(四方平底盤), 원형평저접(圓形平底楨), 판형절건평(盤口折肩瓶)(도판10), 거위목고복병(鵝頸鼓腹瓶), 개완(蓋碗), 그릇 받침(碗托)(도판11), 쌓아서 빚은 향로(堆塑熏爐), 사각형 찬합(四方委角套盒)과 뚜껑(器蓋) 등이 있다. 권족이 있는 기물은 곧은 권족을 주로 하며 외족은 비교적 적다. 일부는 외족과 비슷한 것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여요는 상반되게 외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장공항요 기물에 지정자국이 있는 대다수는 규격에 맞는 작은 쌀알 모양이다. 지정은 3,4개와 5개로 나누어 갑발 받침에 붙어 있다.(도판12) 이 종류의 지소 공법은 여요의 초기 단계에서 보인다. 완, 반과 각종 병의 권족에 투명한 유약과 태가 드러나 있으며 일부 권족 밑에는 유약이 없다. 이러한 기물은 주로 점소하였으며 적은 양은 지소하였다.

가마도구는 갑발(匣鉢)과 원반모양 받침 도구(墊餅), 반지모양 받침 도구(墊圈)을 주로 한다. 갑발은 얇은 깔때기 모양, 깊은 깔때기 모양, 얇은 통형과 깊은 통형의 4 종류가 있다. 주의 할 것은 이러한 갑발 외면에 내화토가 발라져 있는 것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보풍 청량사 어용 여요에서만 보인다.

장공항 요에서 출토된 갑발의 외면에 내화토가 발라진 것과 굽받침(支燒) 방법, 비교적 많은 종류의 여요 자기의 특징에 근거하여 여요와 장공항요는 선인들의 뒤를 이어받

아 계속 발전시킨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요는 이르고 장공항요는 늦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점은 이미 국내외 도자계에 의해 공인되었다. 장공항요의 구체적인 연대에 관해서는 현재 논쟁의 초점이다. 2004년 5월 하남 정주에서 공의황야당삼채요(鞏義黃治唐三彩窯), 여요 장공항요 학술회의가 열렸다.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 학자 50인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공항 요가 문헌상에 기재된 북송 5대 명요 "여(汝), 균(鈞), 관(官), 가(哥), 정(定)" 중 관요(官窯)라고 여겼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들은 장공항 요의 연대가 금대(金代) 이후라고 여겼다.

발굴 후 드러난 지층 퇴적 상황으로 보면, 장공항은 송초(宋初)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활지역이며, 특히 원대 이후에 장공항은 도시의 변화지역에 위치하여 퇴적이 교란된 상태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필자는 장공항요의 연대를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며, 앞으로 발굴과 연구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후기: 얼마 전에 필자는 일부 한국 12세기의 고려청자를 보게 되었다. 그 중 잔받침(盞托), 반구절견병(盤口折肩瓶), 입이 벌어진 연꽃무늬완(敞口模印蓮花碗), 매병(梅瓶), 깊은 배평저세(深腹平底洗), 오리형뚜껑(鴨形器蓋) 등 기물의 조형이 여요의 같은 종류 기물들과 매우 비슷하여 여요를 모방한 것이 외형과 정신을 겸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주의할 것은 여요 중에 찬합은 원형과 육각형 두 종류가 있는데 사각형 찬합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고려 인종(1146년)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사각형찬합(靑瓷四方委角套盒) 한 점과 개완(蓋碗) 한 점은 장공항 요의 같은 종류 기물과 완전히 같거나 유사하다.<sup>8)</sup> 이는 한국 12세기 고려청자가 여요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공항요의 요소도 모방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이는 필자의 미숙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주의와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다.)

8) 鄭良謨 著, 金英美 譯, 『高麗靑瓷』, 文物出版社, 2000年, p. 130



## 강진 청자의 조형성

박종훈 (단국대학교 부설 강진도예연구소장)

### 1. 서론

조형성이라 함은 공간에 나타난 형태와 색상 그리고 조형을 이루는 재료와 기술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강진의 청자는 예로부터 비색의 명품으로 회자되어 사학적으로 연구되어진 부분이 많으나 장인(匠人)들의 입장에서 본 조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이 없지 않다. 사실적인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학문으로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술이 중요시되는 형태 부분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래 미(美)적인 면을 다루다 보면 사실적이며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형성을 논할 때에는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의 평가도 아울러 저야 작품으로서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 그런 면에서 형태를 이루는 과거 장인의 기술적인 면을 서술함에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자가 세계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요구되는 때에 한국의 조형으로서의 기술적인 면이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강진청자의 독자성을 이어가면서도 현실성있는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 2. 본 론

굽각기는 물레성형의 기본으로서 기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형 후 전체를 굽칼로 깎아내는 질감과 손마디 굴곡을 살피면서 밀부분 두꺼운 부분만 깎아낸 형태는 미(美)적으로 느낌이 다르다.

상급의 도자는 전체를 곱게 깎아내는 작업으로 좌우대칭의 완벽함을 느낄수 있으나 손마디굴곡의 자연스러운 미의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강진의 청자 자료실에 전시되어있는 부드러운 손마디 굴곡이 그대로 표현된 청자병(사진1)에서 기벽을 깎아내지 않으면서도 과장되거나 어색하지 않게 끝맺음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손마디 굴곡은 손바닥안의 중간마디를 사용하여 성형하는 방법과 손가락 끝마디로 성형을 하는 방법 (사진2,3) 중 청자의 손마디 굴곡은 강진청자 자료관 수장고에 있는 파편 (사진4)으로 보아 대체로 손바닥 안의 마디로 성형 된 것이 틀림없다. 손마디 굴곡의 대담성이 엿보이는 청자베개 (사진5)는 높이9cm 길이17cm 정도의 크기에 3~4번의 손마디 굴곡으로 형태에 힘을 심어주는 표현으로서 좋은 예이다.

굽칼로 깎아내는 일은 그릇의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다. 손마디 굴곡을 그대로 두고 완성을 했다면 그만큼 얇게 성형되었기 때문에 굳이 굽칼로 기벽을 깎아내지 않아도 되는 빼어난 성형기술이다. 청자 참외형 주자(사진6)에서 보듯이 20cm내의 높이의 형태를 만드는데 굽을 깎아내지 않아도 될만한 솜씨로 얇게 성형되었다. 따라서 굳이 기벽을 깎아내지 않고 기면이 어느 정도 물기가 건졌을 때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도구로 골을 만드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굽을 깎고 세로의 골을 만드는 데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자 최고의 기술을 발휘했던 상감청자시기에도 기벽에 손마디 굴곡을 그대로 두고 상감을 표현한 청자 상감 국화문 참외병(사진7)은 해강도자미술관에 소장되어있는 참외 병(사진8)과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병의 풍부한 어깨부분 밑에 나타난 굴곡은 위아래 접합 할때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은 매병(사진9)으로 미루어 보아 청자의 초기에나 전성기에도 나타나는 손마디 굴곡은 청자의

조형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손마디 굴곡이 밑부분 보다 상단에 잘 나타나 있는 청자 철화 당초문 주전자 (사진10)는 중간부분에 희미한 굴곡으로부터 상단에 와서는 뚜렷한 굴곡이 보임으로서 이 주전자 역시 손마디 굴곡을 깎아내지 않고 세로의 선을 눌러 표현한 조형이다.

### 3. 결 론

해동역사(海東繹史)에 여러 곳의 명물을 기술하면서 “고려 泌色 또한 천하 제일이며 다른 곳에서 배우려 하지만 끝내 미치지 못한다” 는 표현과 송(宋)시대 국신사(國信使)를 수행한 서궁(徐兢)이 비색(翡色)이라고 표현하리만치 청자의 색에 대한 언급이 많다. 그리고 현재도 중국에는 청자의 비색이 회자되고 있다. 청자는 색상뿐 아니라 성형 방법도 중요하다. 기면을 깨끗하게 깎아낸 형태의 고급청자가 있는 반면 손마디 굴곡이 남아있는 청자를 찾아봄으로서 청자 성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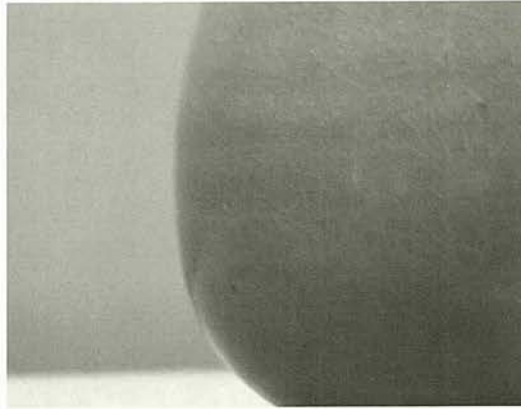


사진1. 청자철화 '金' 자명광구병,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사진2. 성형 방법(손바닥안의 중간마디를 사용) 사진3. 성형 방법(손가락 끝마디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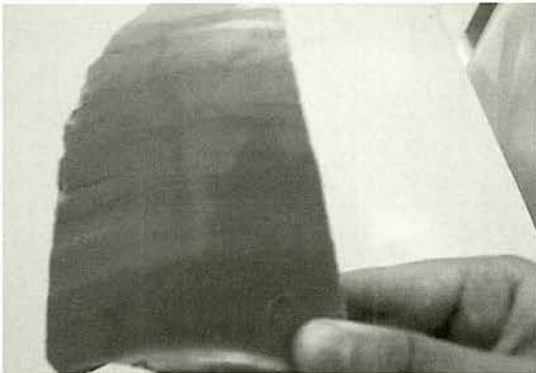


사진4. 청자호 편,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사진5. 청자베개





사진6. 청자음각연화문주자, 국립중앙박물관



사진7. 청자상감국화문병 세부  
강진청자자료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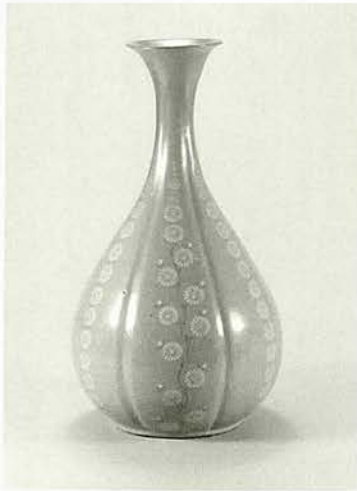


사진8. 청자상감국화문병  
해강도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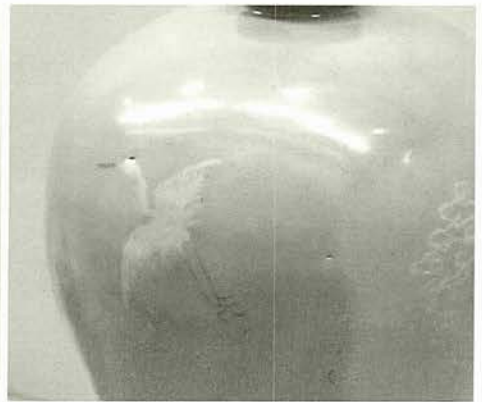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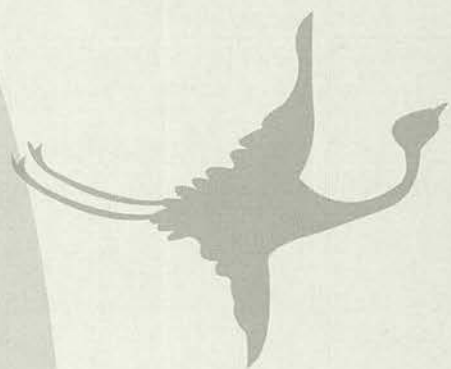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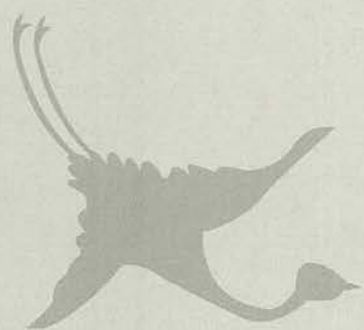
사진9.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강진청자자료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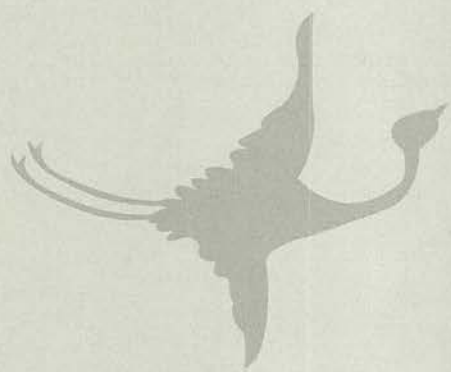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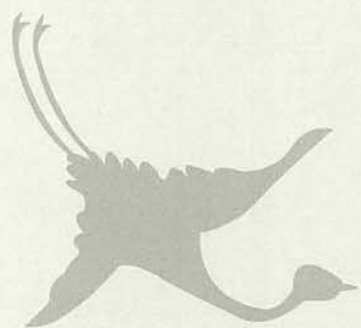


사진10.  
청자철화당초문주자



사진11. 청자철화당초문매병









高麗靑磁

강진균·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